

광주 상업지역 아파트 도시문제 심각

광주지역 상업지구에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고층아파트 건설이 남발되면서 학교부족, 경관 문제, 상업지역 주거지화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도시회복을 위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 방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도시문화집단지성연구소 박사는 "도시공동화 해결 차원에서 2000년에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도입했으나 현재 공동화보다 더 심각한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경관 훼손과 교통난을 비롯해 주거지역

주상복합 명목의 고층아파트 건설로 도시문제 상업지역에 상가는 없고 주거시설만 있는 건물 준주택 면적 비주거시설 의무확보에서 제외해야

에 필수적인 학교 등 기반시설 부재로 시민의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도시관리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상업지구인 광주 첨단지역은 고층아파트 1600여 세대가 건립되다보니 통행거리가 1.4km로 멀고 통행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모텔과 유흥업소를 지나 학교에 다니고 있다.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에는

비주거 상업시설을 최소 10% 이상 건축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의 비주거 시설 면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하면서 상업지역임에도 상가가 거의 없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광주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은 20층 미만이 18곳, 20~30층이 5곳, 30~40층이 10곳, 40층 이상이 3곳이다.

정 박사는 "주택법시행령에서 준

주택 면적을 비주거시설 의무확보 면적에서 제외하고 불합리한 용적률 체계를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광주시가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 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도, 최근 일부 건설·건축업계의 반대 입장을 수용해는 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개정안에서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은 비주거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으나, 이 내용을 삭제했다"며 "후회한 조례 개정안이 조만간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日신주쿠 노래방서 총격...한국인 1명 사망

일본 도쿄(東京)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국 국적의 남성이 사망했다.

22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21일 오후 6시 30분께 쇼팽 및 유희가로 유명한 신주쿠(新宿)구 가부키초(歌舞伎町)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노래방)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한 남성이 노래방 4층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해, 해당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가슴에 총알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시청 수사 결과, 사망자는 도쿄(東京)에 거주하는 6세 한국인 남성 이모 씨로 밝혀졌다. 재일교포인 한국인인지 자세한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개인적인 충돌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용의자는 50~60대 정도의 남성으로 사건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용의자가 폭력단 관계자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美 기록적 폭설·한파 피해 속출...5명 사망

미국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지난 주말이후 22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총 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알링턴 하이츠에서는 한국계 여아 정모(12) 양이 얼음집을 만들어 놀다가 눈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미 동부 코네티컷주 미들타운에서는 전기 공사를 하던 전기공이 전선주 나무가 쓰러지면서 사망했고 미 중부 미주리주에서 시는 30세 남성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치며 목숨을 잃었다.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제설작업을 하던 59세 남성과 91세 남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재난본부는 이날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난방 기구를 점검하는 등 동상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애완동물들을 집안에 틀 것 과 바깥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20~영하 29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상학자 마이클 가이는 "이번 한파 이외에 또 다른 커다란 한파가 이번 주말에 다가올 것"이라며 "한랭 기류는 앞으로 2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미국 동부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온도에 근접하고 있다며 북동부 산간지대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파 여파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도 부분적으로 얼기 시작했으며, 코네티컷주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사태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기 결항 사태로 많은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21일(현지시간) 하룻동안 1200편의 항공기가 결항했고, 4000편의 항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흑해서 탄자니아 선박 2척 화재...14명 사망

러시아의 흑해와 아조프해를 연결하는 케르치 해협에서 21일 저녁(현지시간) 탄자니아 국적의 선박 2척에 화재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해상·하천 교통청은 해상·하천 교통청은 "12명의 선원을 구했고 시신 11구를 바다에서 수습했다. 3명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행방불명이다. 실종된 선원 5명에 대해서는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에서 액화가스를 싣고 운반 중이던 두 선박은 케르치 해협에서 정박해 연료를 옮겨 싣고 있었으며, 선박 한 척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선박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칸디' 호와 '마에스트로' 호로 알려진 탄자니아 국적의 두 선박은 인도인과 터키인을 포함한 총 3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선박에서 탈출한 한 선원은 갑작스럽게 선박이 화염에 휩싸였고 선원들이 배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당국은 러시아 해군 2척을 배치해 구조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국 홍역 환자 31명 "경기 안산 영아 확진"

경기도 안산에서 어린이 1명이 추가로 홍역에 걸리면서 홍역 확진 환자가 31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추가된 1건은 백신 미접종 영아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안산시에서 발생한 영아 5명, 성인 4명 등 9명과 같은 시설에 있는 영아 1명이 추가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기도 집단 유행 사례는 종전 10명에서 11명(시흥시 1명, 안산시 1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유진형은 현재 검사 중이다.

또 다른 집단 유행 사례인 대구·경북 대구시 16명, 경북 경산시 1명)에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1명만 감염된 신발 사례인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안양시, 전남 신안군 등에서도 다른 환자 신고는 없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추가 환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를 비롯해 집단 유행이 발생한 대구시와 경북 경산시 등 3곳을 '홍역 유행 지역'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자연 항체를 가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02년 홍역 면역도 조사 당시 30~34세군의 95.4%에게서 항체가 확인됐다.

성인의 경우 홍역에 대한 면역력은 홍역에 한 번 걸린 뒤 완치되거나 MMR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해야 생긴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1967년 이후 출생자가 가운데 홍역 진단을 받은 적이 없거나 MMR 백신을 1회만 맞았다면 1회 이상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나무가지에 열린 얼음꽃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인 22일 전북 남원 지리산 연하천산장에서 세석평전 사이 중추길 나무 가지에 얼음꽃이 피어있다.

광주경찰 '3·1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사 전담반 편성

광주경찰이 오는 3월13일에 열리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대해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청을 비롯한 5개 경찰관서에 '조합장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농협 1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18명이 선출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는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익 추구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법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상 황유지와 함께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고 당선 뒤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또 선거공보물을 훼손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폭력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다.

실 명절을 전후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광주경찰은 16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12명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을 위해 '금품'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며 "법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스펙트럼, 자살치로, 중년 민력어